



NEW WORD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warrior	전사	2. fair	공정한	3. expand	확장하다
<input type="checkbox"/>	4. dominate	지배하다	5. surrender	굴복하다	6. capture	체포하다
<input type="checkbox"/>	7. overlook	내려다보다	8. gold coin	금화	9. belonging	재산
<input type="checkbox"/>	10. fertile	비옥한	11. advance	진군하다	12. tyrant leader	폭군

NEW EXPRESSIONS

☐

☐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a great warrior	위대한 전사	2. put him on a wall	그를 성벽에 세웠다
<input type="checkbox"/>	3. make him a rich man	그를 부자로 만들다	4. Babylonian Empire	바벨론 제국
<input type="checkbox"/>	5. dominating all of Asia Minor	소아시아 전체를 정복하면서	6.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READING

☐

☐

Reading 1	Cyrus became the king of Persia. He was a great warrior and a good and fair king. Cyrus decided to expand his empire. He wanted to dominate the Asia Minor. Asia Minor was dominated by Kroisos, the richest king in the world.
Reading 2	Cyrus thought that surrendering Kroisos would make him a rich man. So Cyrus captured Kroisos and put him on a wall overlooking the entire city. He saw Persian soldiers stealing his gold coins. But he just watched quietly.
Reading 3	Cyrus finally asked. " Why aren't you saying anything? Aren't my soldiers taking all your gold? " Kroisos replied. " This city is yours now. So they are stealing your belongings. " When Cyrus heard this, he immediately stopped stealing. And his troops marched east again, dominating all of Asia Minor.
Reading 4	He still had the biggest enemy. It was the Babylonian Empire. Babylon was a great empire that had been dominating Mesopotamia for a long time. Cyrus wanted to dominate all the fertile land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Cyrus advanced the army to Babylon.
Reading 5	The Babylonians heard rumors that Cyrus was a good and fair king. On the other hand, their king was a tyrant leader. The Babylonians welcomed Cyrus widely. Cyrus became the greatest king in the world. However, there was one nation that had not yet obeyed Cyrus. That was Greece.

해석

Reading 1	키루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그는 위대한 전사였으며 착하고 공정한 왕이었다. 키루스는 자신의 제국을 더 넓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소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싶었다. 소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던 크로이소스(Kroisos)가 지배하고 있었다.
Reading 2	키루스는 크로이소스를 굴복시키면 자신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키루스는 크로이소스를 사로잡아 도시 전체가 보이는 높은 성벽에 그를 세웠다. 그는 페르시아 병사들이 자신의 금화를 약탈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Reading 3	마침내 키루스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나의 병사들이 너의 금을 모두 약탈하고 있지 않느냐.” 크로이소스가 대답했다. “이 도시는 이제 당신 것이요. 그러니 저들이 당신 것을 훔쳐가는 것이요.” 키루스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약탈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다시 동쪽으로 진격해 소아시아의 땅을 모두 지배했다.
Reading 4	아직 그에게 가장 큰 적이 남아 있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 바벨론은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었다. 키루스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땅을 모두 지배하고 싶었다. 키루스는 군대를 바벨론으로 진군시켰다.
Reading 5	바벨론 사람들은 키루스가 어질고 공정한 왕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반면에 그들의 왕은 폭군이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고 키루스를 맞아들였다. 키루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키루스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였다.